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희망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희망

인류가 지구에 존재해 온 수세기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생을 조기에 마감했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그 수는 10억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이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국가 간 분쟁의 목적이 발표될 때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 그 목적 중 하나로 자주 선언되곤 한다.

이는 고귀한 목표로 보일지 모르나, 전쟁이 끝날 무렵이면 거의 모든 관련자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거의 모든 전쟁 이후에도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지속적인 실패는 조만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려움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이야기였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두려움은 이기심과 증오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 인간 지도자들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데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한때 지상의 현자들은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더 높은 문명 단계로 꾸준히 진보하고 있으며, 두려움은 머지않아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예언자들의 꿈이자 시인들의 노래였던 평화와 선의의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러한 밝은 미래 전망이 타당하다는 증거로, 우리는 교육의 발전을 상기시켰으며, 계몽된 세상은 전쟁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 들지 않을 만큼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의 엄청난 발전을 고려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또한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종교가 지구상에서 그토록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머지않아 전 세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철학에 완전히 흠뻑 젖어들게 되어 전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그 밖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희망

수많은 주장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러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상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 25년의 2분기에 접어든 지금, 개인과 사회, 국가를 괴롭히는 수많은 다른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는 이러한 두려움 중 일부만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특히 소위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와 관련된 두려움으로, 이는 많은 국가 내에서 불안과 폭력을 초래해 왔다.

중동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분쟁과 혼란,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및 기타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세계의 초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져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영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류가 그 발전과 사용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세계 초강대국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제재받지 않을 경우 사회의 상당 부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규모 불량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금융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 특히 파괴적인 폭풍, 산불, 지진과 같은 더 강력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나 전례 없는 기상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우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그로 인한 전 세계적 파괴적 영향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도덕, 인종, 종교 또는 기타 영역을 막론하고 “문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사회 전반이 너무나 파편화되고 분열되어 방향성을 상실한 채 조만간 스스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희망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문제의 징후가 엄청난 규모로, 사방으로 계속 확산되어 인류의 궁극적인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요?

예언 속의 우리 시대

현재의 공포와 고통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명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예기치 않게 닥쳤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를 예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 바로 이 시대를 예언하며, 이를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의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니엘 12:1). 예수님께서서는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며, 그 성취가 자신의 재림과 세상의 끝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난의 시기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설명하시며, 땅 위에 “민족들 사이에 공포와 당혹감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땅에 닥칠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25, 26).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현재를 가리키고 계셨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사람들 사이에 그토록 광범위한 두려움이 퍼진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열방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를 바다의 포효와 파도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한때 세상을 평화와 선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자랑했던 바로 그 과학과 기술이 실현해 낸, 닥쳐오는 인간 이기주의의 물결이 초래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대재앙을 막으려 절망적으로 분투하는 오늘날 불안하고 불만 가득한 인류의 군중을 참으로 적절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윗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했으며, 예수님처럼 그 역시 한때는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문명의 방어벽을 향해 사람들과 나라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희망

요란한 요구가 몰아치는 가운데, 세상의 혼란을 바다와 파도의 가차 없는 몰아침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져도, 그 물이 요동하며 소란스러워도, 산들이 그 물결로 인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시편 46:2,3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닥칠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숙지하고, 오늘과 내일에 대해 그 예언들이 밝히는 바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만이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은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어두운 시기의 결말에 대한 유일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인류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확신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비극적이고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시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가 운명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 왔다. 이는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함의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우리가 이를 파악하려고 할 때 상상력이 거의 벅차오를 지경이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한때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지구의 종말(전도서 1:4)이 아니라, 사탄이 지구를 지배하는 통치의 종말이며,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대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 수립을 위한 준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징조들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을 예언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제자들이 그분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3). 이 질문을 인용함에 있어 우리는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의 정확한 번역본을 따랐습니다.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재림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현재의 세계 상황에 대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자, 다가올 더 나은 날들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 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랐으며, 그분의 재림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에게 주어질 평화와 기쁨, 생명의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이 지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서였으며, 그분께서 직접 설명하셨듯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신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51).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성을 희생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길을 마련하신 후, 그분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창조주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영광스러운 신성한 존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16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몇 가지 예언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매우 조잡한 개념들이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매달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실 것이며, 동시에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나, 그 파괴력은 인간이 핵무기를 사용해서조차 이룰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개념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예언들이, 우리 문명을 형성해 온 인간이 만든 제도의 대격변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상”이라고 묘사한 바로 그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4). 예수님께서서는 사탄, 곧 마귀를 “이 세상의 왕”이라고 지칭하셨으므로, 세상의 종말은 사탄의 제국의 종말, 즉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그의 주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31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인류는 사탄의 세상이 끝났음을 깨닫게 될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민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아니라, 권위와 법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을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존재를 영속시키기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노력해 온 사람들에게조차 결코 완전히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었지만, 죄와 악이 우세했다.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이에게 두려운 유산이었다. 증오와 전쟁은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국가들의 평화를 파괴해 왔다.

이 세상과 내세 모두에서 닥칠 더 끔찍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누릴 수 있었을 기쁨을 남녀 모두에게서 빼앗는 데 일조해 왔다. 진실로, 성경이 선언하듯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으며, 우리가 그 특징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성경이 선언하듯이 그 통치자가 결박당하고 마침내 멸망당할 것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분이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희망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멸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준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영감 받은 예언에서, 그는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원수는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고린도전서 15:24-26).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적, 인간의 적, 그리고 의의 적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록 죽음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 근절될 마지막 적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적들은 이미 멸망될 것이며, 그중 가장 먼저 멸망할 것들은 그리스도의 정의와 의의 통치를 방해하는 이 땅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적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들에 의해 속박되어 온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다니엘 12:1

시편 제2편의 예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세우신 땅의 위대한 왕으로 언급됩니다. 그분이 권능과 영광 가운데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21). 이러한 질서의 대재앙적 전복에 대한 예언과 관련하여, 지난 한 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는 유럽의 많은 세습 통치

가문들이 몰락하는 것과 그에 뒤따른 세계 정세의 혼란을 목격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직접 예언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애통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어가는 세상에 평화와 기쁨, 생명을 가져다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치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탄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인식조차 되지 않는 통치자로 군림해 온 기존 통치 체제를 전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의 문화와 교육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왜 세상을 파멸로 치닫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 해답은 성경의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신성한 영향력이 인간의 일에 개입했기 때문이며, 이 영향력은 신성한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통해 점차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억압과 전쟁을 조장해 온 죄와 이기심의 제도들을 전복시키는 일은 신성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과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약 6천 년 동안 인류는 죽어가고 있었다. 인간 스스로는 모든 이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죄의 독침에 대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이제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오셨으며,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는 환자인 인류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공정하고 의로운 법 아래 두는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한 준비 과정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아직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뿐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의 예언들은 등대 빛과 같아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날이 곧 밝아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날은 건강과 기쁨, 평화, 생명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한 임재로부터 비추어 나올 날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왕이시며, 예언적으로 “의의 태양”이라 묘사된 영광스럽고 신성한 통치자이시며, “그 날개에 치유를 품고 떠오르실” 분이십니다. 말라기 4:2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온 인류가 인간에 의해 구성된 정부들의 권능을 능가하는 힘이 인류의 사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재구축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계속해서 실패함에 따라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이며, 그들의 지혜와 군대의 막강한 힘으로 열방에 평화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수립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 경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남에 따라, 그들은 점차 더 높은 권위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아직 미래에 펼쳐질 이 사건은 선지자 미가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그의 집 산이 모든 산의 정점에 세워지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아오를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를 것이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그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칼을 쟁기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미가 4:1-4

이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확신을 주는 예언으로, 현재의 정세를 고려할 때 곧 성취되어 온 인류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시기를 명시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예언적 표현인 ‘마지막 날들’은 전통적인 종말론적 개념이나, 이 땅의 멸망, 혹은 지구상 인간 존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마지막 날들, 죄와 죽음의 마지막 날들, 전쟁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에덴 동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 온 온갖 악의 마지막 날들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예언적인 ‘마지막 날들’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을 괴롭혀 온 악들 중 일부가 소멸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억압하던 유럽의 세습 통치 가문들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결국 공산주의든 파시즘이든 그 밖의 어떤 형태이든 전체주의 독재의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의 종말과,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파괴적인 공포의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에 예고된 마지막 날들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영광스러운 시기이며, 머지않아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주님의 집 산이 모든 산의 정상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산은 곧 주님의 왕국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예언서 제2장에서 지상에 대한 인간의 통치를 화려하고 인간과 닮은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이 통치의 종말을 그 형상의 멸망으로 비유합니다. 멸망의 도구는 돌로 나타나는데, 이 돌은 결국 자라나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예언을 해석하며,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산, 즉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집의 산’으로 묘사합니다. 이 주님의 집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그분의 가족으로 지칭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으뜸이시며,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으라는 초대를 받아들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분과 함께 살며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주님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16, 17

기적을 행하시는 신성한 권능이 이 새로운 통치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사탄은 평화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신성한 권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 지칭하는 것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6

그리스도 왕국의 승리한 통치를 묘사한 예언에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이사야 9:7).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만왕의 왕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 신성한 능력이 그의 공동 통치자들을 다시 살리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모든 선한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러므로 약속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지자 미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 가문이 산들, 즉 왕국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가문은 모든 나라의 사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인데, 이는 이사야가 “그의 통치와 평화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사야 9:7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고 미가의 예언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인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국주의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왕국의 확장되는 권능을 알게 될 때,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며, 예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할 것이다.” 이 예언의 이 부분이 성취될

무렵, 열방은 자신들의 방식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혼돈과 파멸로부터 구하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들은 비로소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그 때쯤이면 지상의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게 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방이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실천하려 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지극히 기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그들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항상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순서는 지상의 새로운 왕에 의해 뒤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왕국 법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로 들어옴에 따라, 이전에는 전쟁의 수단으로 전용되었던 지구의 자원이 이제 백성들에게 삶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 몇 마디 말이 내포하는 인간 관점과 경험의 광범위한 변화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은 평시 징병제와 전시 징집을 없애줍니다. 또한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도록 키우지 않아도 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추악한 형태의 군국주의를 근절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게 되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전쟁 전략을 제외시킨 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때 사람들은 평화와 의의 길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이므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 아름다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 아래에서 지구의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 것이며, 그 자원을 공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신성한 왕국의 법에 의해 보장될 것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될 것이기에, 예언은 “그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 두려움은 국가 간의 잠재적 또는 위협적인 침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침략과 그로 인한 가격 폭리는 대중에게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비인간적 행위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조 부모를 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기쁨의 유산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칙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회복될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파멸

미가서의 예언이 아무리 아름답고 안심을 주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인류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지금 막 끝나가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더한다면, 철학자들이 꿈꿔왔지만 결코 실현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두려움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중세 시대의 기괴한 가르침들 때문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과 의사, 장의사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따르는 모든 악들조차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 멸망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다른 약속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이 멸망될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야 25장 6-9절의 예언을 살펴보십시오. 이 예언에서, 미가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는 산으로 상징되며, 이 산에서 죽음이 승리로 삼켜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 . 그리고 그 날에 사람들이 말하리라”고

선지자는 이어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도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죽어가는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소망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언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그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의 때”라고 묘사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20, 21). 우리는 재림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만물의 회복 또는 복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는 산 자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실 그분의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 이 현세적 악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인간의 이기적인 제도들에 대한 파괴일 뿐입니다.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땅은 인간을 위해 지어졌으며,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과 그의 생명 또한 죄로 인해 상실되었습니다. 이 상실된 낙원은 회복될 것이며,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회복의 때”라고 묘사한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이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왔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예언적 증언의 한 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꼽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 하에서 백성들에게 임할 회복의 축복을 묘사한 또 다른 예언적 말씀은 이미 인용된 바와 같이, 죽음이 승리로 삼켜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그 복된 약속입니다. 그때 인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슬픔의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거될 때 온 인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의 소망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회복의 시대를 묘사하며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학개 2:7). 모든 민족은 평화를 갈망하며, 침략으로부터의 안전을 원하고, 백성의 번영을 소망합니다. 또한 선지자 다윗은 지상의 새로운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그가 백성 중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궁핍한 자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압제자를 산산조각 내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72:4

또 다른 회복에 대한 약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통치 기간 동안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또한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5:5,6).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눈과 귀가 막힌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세의 악한 세상의 신, 곧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사랑의 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4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회복의 축복을 또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해 “그때에 주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하박국 2:14).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거나 상충되는 종교적 신념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또 다른 예언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또는 메시지]를 주실 것”이며, 그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스바냐 3:9). 그때 사람들은 온 마음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숭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도, 애통함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전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4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를 믿고 용기를 얻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한 누군가가 그런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그러한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28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움직일 힘을 주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에 순종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실 능력이 넘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의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백성 중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사도행전 3:23). 영생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희망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희망이며, 이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선지자가 기록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보복하러 오시리니, 곧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35:4

예언에서 우리 시대를 지칭하는 명칭 중 하나는 ‘보복의 날’입니다. 이는 죄와 억압의 오랜 체제와 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현세적인 악한 세상이 뿌리째 뽑히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움으로써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곧 온 땅의 모든

가족에게 평화와 건강, 생명,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